“SNS 악플은 口業… 자신 옥죄는 악업 사슬”

박수호 교수, 불교평론 학술심포지엄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인의 소통은 인터넷 공간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이뤄진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언어폭력들이 일상화돼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불교 윤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됐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8월 31일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열린 2018년 불교평론 학술심포지엄에서 ‘사이버 공간과 SNS에서 언어폭력과 불교적 대응’을 발표했다.

먼저 박 교수는 사이버 공간과 SNS에서 이뤄지는 소통의 특징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보장받아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비난과 욕설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공개적인 쌍방향적 대화를 보이는 SNS에서도 사생활 노출로 인한 비난과 왜곡 등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박 교수는 사이버 공간과 SNS에서 이뤄지는 통신언어도 의사소통의 왜곡 요인으로 꼽았다. 생생하게 쓰기나 재미있게 쓰기 등의 통신언어는 비대면적 상황에서 소통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언어문화이지만, 재미를 위한 자극적 표현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터넷 언어폭력 심각 수준
불교적 제도 가능성 분석해
사섭법 · 십선계 등 윤리 적용
번뇌의 불구덩이서 벗어나야

박 교수는 “소통의 주제가 첨예한 대척점을 내포하고 있는 여성 · 난민 · 소수자 · 지역 · 이념 등일 경우 ‘혐오발언’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고 진단하며 “혐오 발언은 그 자체로도 폭력적이고 갈등을 유발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악성 댓글이 폭주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이버 공간과 SNS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불교 윤리적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박 교수는 불교의 사섭법과 삼법인, 십선계를 윤리적 적용 사례로 들었다. 특히 박 교수는 대승불교의 대표 계율인 십선계는 소통과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기제로 주목했다. 십선계의 10가지 선행 중 4가지가 언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과 비방, 남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십선계의 가르침은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왜곡된 소통 상황에 즉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심각성을 더하는 악플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이 같은 4가지 말로 짓는 악행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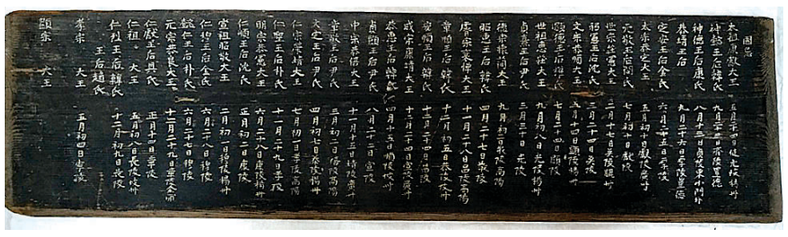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은 8월 31일 사옥 세미나실에서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한 박 교수는 SNS에 나타나는 폭력적 상황은 모두 언어에서 촉발됨을 분명히 하고 “이는 구업뿐만 아니라 신 · 의업과 연결된다”며 “SNS 언어폭력은 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 행동 모두에 걸쳐서 악업을 짓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의 업설은 업에는 과보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가르치며, 그 바탕 위에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증장해야 한다는 윤리적 규범을 제시한다”며 “악플 하나가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옭아매는 악업의 사슬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복덕을 짓는 구도이자 수행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영사, 조선왕실 발원 기도 도량이었다

손신영 책임연구원
불영사 학술대회서
의상전 분석 과정에서
왕실과의 관계 조명해
동불연과 MOU체결도


불영사 소장 ‘국기(國忌)’ 현판. 태종부터 현종까지 왕과 왕비 이름과 기일, 능이름이 기록돼 있다. 이는 불영사와 조선왕실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의상 대사가 창건한 천축산 불영사가 조선시대 왕실의 발원 기도 도량이었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9월 1일 ‘울진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린 불영사 주최 제2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손 연구원은 불영사에만 존재하고 있는 창건주를 기리는 전각인 ‘의상전’을 연구 · 분석한 ‘울진 불영사 의상전 연구’를 발표하며 조선왕실과의 관계를 함께 조명했다.

실제 의상전은 2001년 해체수리 당시 발견된 상량문에서 1867년 인현왕후의 원당으로 창건된 전각임이 확인됐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인물인 인현왕후의 원당이 왜 19세기에 지어졌는지, 왕실 인사의 원당이 의상전이 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못했다.

손 연구원이 주목한 것은 불영사와 조선왕실과의 긴밀했던 관계였다. 그는 △국기(國忌) △불영사 명부전 존상 조성 발원문(1688) △산신도 복장 발원문(1880) △응진전 복장 중 대중원문(大衆願文, 1906) △대한국강원도울진군천축산불영사중수기(大韓國江原道蔚珍郡天竺山佛影寺重修記, 1906) △아미타회상도 화기(1906)를 사례로 들었다.

특히 왕실 제사 일정을 기록한 ‘국기’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불영사의 ‘국기’ 현판에는 태종~현종까지 역대 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혀있고, 기일과 능이름이 수록돼 있다.

손 연구원은 “‘국기’ 현판은 강원도 신흥사와 삼척 영은사에 전해진다”면서 “이 현판의 존재는 왕실 관계 사찰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또한 명부전 존상 조성 발원문에는 왕의 내전에서 거주하는 송씨 · 이씨 · 박씨 상궁들이 발원해 왕실을 축원하며 복을 기원하고 있어 1680년대 불영사에서는 왕실발원불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6년 불사를 보여주는 응진전 대중원문, 중수기, 화기를 통해서도 불영사가 새롭게 단장되는 대규모 불사가 왕실발원으로 이뤄졌다는 게 손 연구원의 설명이다.

손 연구원은 “1681년과 1688년 불사는 왕실의 기대를 담아 이룩된 불사”라면서 “불영사는 왕실 공식 원찰은 아니었지만 숙종과 고종 연간에 왕실 발원 기도를 봉행하던 사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상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의상전은 1867년 인현왕후 원당으로 창건됐으나 1906년 이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고, 이후에는 조사전으로 칭해지다가 20세기 들어 불영사의 전통에 따라 의상전이라 명명하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상의 화엄사상이 구현된 불영사의 지형과 공간(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장) △17세기 후반 울진 불영사 불교조각 연구(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울진 불영사 목조각품의 수종과 연륜연대(김요정 충북대 목재연륜소재은행 책임연구원) △19세기 불영사와 불화 불사(김미경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이 발표됐다.

한편, 불영사는 학술대회에 앞서 행사를 주관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찰 문화재 연구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2018 가을학기 불교학 박사 논문들 〈下〉

화쟁논법 · 들뢰즈 철학 비교
삼계교 실천 사상 등 ‘주목’


박부자


김혜원


이용애


김태수

2018년 가을학기에 동국대 등에서 14명의 불교학 박사가 배출됐다. 이들 가을학기 박사 학위자들의 박사 논문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중국 삼계교의 실천사상은

박부자 박사(동국대 불교학과)는 ‘삼계교(三階教)의 실천수행사상 연구’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개창 당시를 말법시대로 본 신행선사가 개창한 삼계교 사상의 중심은 보경(普敬) · 인악(認惡)에 있다. 보경은 누구나 부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악은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반성하는 데 있다. 박부자 박사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 삼계교를 개창한 신행의 실천론의 특징”이라며 “보경과 인악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제3계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자선 〈필삭기〉 해석적 특징

김혜원 박사(동국대 불교학과)는 ‘장수자선(長水子璿)의 대승기신론 소필삭기(大乘起信論疏筆削記) 연구- 삼세육추(三細六) 해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혜원 박사는 〈필삭기〉에 나타난 해석적 특징에 주목하고 삼세육추의 주석에서 자선의 주석적 특징을 살폈다.

김혜원 박사는 “〈필삭기〉의 삼세육추 주석과 비교검토했을 때, 자선 해석의 특징은 ‘몽유(夢喩)를 통한 삼세의 이해’에 있다”면서 “자선의 몽유를 통한 삼세 해석과 이와 같은 분석 방식은 그의 다른 주석서인 〈간정기〉와 〈의소주경〉의 몽유 관련 기술과도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첩요 · 열망소 · 청집기의 삼세육추 해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불교 의식의 기원과 발전 고찰

이용애 박사(동국대 미술사학과)는 ‘한국불교 재의식의 설행양상과 불화’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용애 박사는 논문에서 불교의식의 기원과 성립, 재의식 설행 양상 등을 분석했으며, 의례에 사용되는 불화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그는 불교 재의식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변화하면서 영가천도를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량장엄은 불교 의례 예술의 백미로서 시각적 효과와 모인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힘이 있음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불교의식과 장엄의 경우 이를 행함에 있어 의식을 더 의식답고 장엄하게 해야만 하고 더욱 법답게 흐트러짐 없는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효 화쟁 논법 구조와 특성

김태수 박사(서울대 철학과)는 ‘원효 화쟁논법 연구-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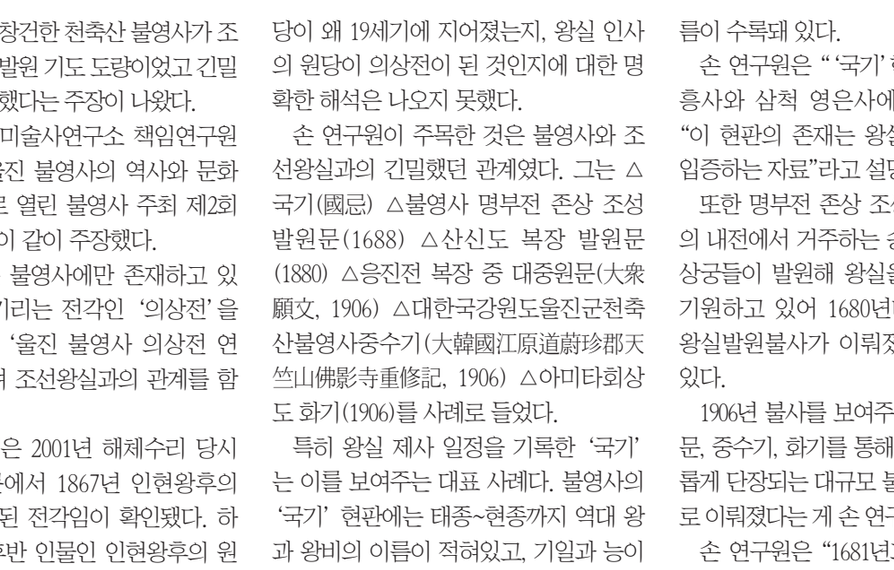
특히 현대 철학과 대비한 화쟁론 분석은 눈길을 끈다. 김태수 박사는 일심이나 불설 등에 의거해 모순되는 입장을 화쟁한다는 점에서 변증법적 방법론과 흡사한 요소가 있지만, 변증법과 달리 본체나 단계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문제로부터 분화된 각 부문을 종합해서 공통의 의미를 산출한 해법으로서의 화쟁이, 잠재성으로서의 이념인 일심과 같은 문제 안에 함축돼 있다는 점에서 들뢰즈의 새로운 변증법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구의 불일불이 중 불이로서의 일심을 절대적 일심으로 보는 동일성의 철학이 아님을 짚어낸 논자는 쟁점을 바라보는 각각의 시각과 태도의 차이를 존중하는 불일에 의거한 불이론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는 들뢰즈의 후기 구조주의나 현상학과도 상통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